

디지털·그린·휴먼... '전남형 뉴딜' 80조 투자

162개 과제 선정 종합계획 수립 2030년까지 전남행복시대 실현 48개 과제 블루이코노미 연계

전남도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공간 뉴딜 등 3대 분야에 80조2841억원 규모의 162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오는 2030년까지 전남 행복 시대 실현을 위해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 '저탄소 사회 전환(2050 탄소중립)', '혁신인재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초광역협력 기반 지역균형발전'을 3대 목표도 제시했다.

전남도는 27일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을 전남의 새천년 미래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와 연계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공간 뉴

딜을 중심으로 '전남형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 분야'로는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SOC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를 비롯 디지털 기반 신성장 산업 육성,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농축수산업 스마트화,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 네트워크 구조(D.N.A) 생태계 강화 등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광양항 스마트 항만 구축, 첨단 무인자동차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전동 수직이착륙(eVTOL) 자율비행 핵심기술 개발 등 4조2297억원 규모의 74개 과제가 진행된다.

'그린 뉴딜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자립과 그린 생태계 회복,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 도민과 함께 녹색사회 구현 등의 추진전략을 세우고, 8.2GW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와의 이익공유

형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RE(재생에너지)100 전용 시범산업단지 조성,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등 총 55조8950억원 규모의 65개 과제를 추진해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할 계획이다.

'휴먼·공간 뉴딜 분야'는 일자리 기반 안전망 강화, 스마트 혁신인재 육성, 지역균형발전 초광역 협력을 추진전략으로, 블루잡 청년일자리 프로젝트와 한국에너지공단 설립, 웰에이징 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 초강력 레이저센터 유치 등 총 20조 1594억원 규모의 23개 과제가 추진된다.

특히 162개 과제 중 48개 과제(62조4081억원)는 한국판 뉴딜과 방향성이 일치한 블루이코노미 연계 과제로, 전남의 미래 발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을 함께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남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맞춰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지역균형뉴딜 추진단과 민간자문단을 구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과제 발굴에 나서고 있다.

내년 정부예산에 58개 과제 5776억원이 반영된 만큼 전남형 뉴딜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들이 오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고, 부처별 공모사업에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핵심 사업들을 국가계획에 반영시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전남의 경쟁력을 높여줄 초광역협력 사업과 지역 내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한국판 뉴딜과 블루이코노미의 강력한 연계를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도하고 '2030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의과대학 유치 기대' 전남 올해 최대 뉴스 '전남도정 10대 뉴스' 설문조사

전남도가 '2020 전남도정 10대 뉴스' 설문조사 결과 총 설문응답자 933명 중 480명(51.4%)이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기대'를 올해 최대 뉴스로 꼽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도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한 언론에 보도된 30개의 주요 뉴스 중 10개를 선택한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지난 9일부터 2주간 진행됐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기대'에 이어 2위는 387명(41.5%)이 꼽은 '남도장터 매출액 사상 최대'가 선정됐으며, 3위는 357명(38.3%)이 뽑은 '무안 공항 경우 호남고속철 연내 착공'이 차지했다.

이밖에 ▲코로나19 극복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배송 ▲전국 최초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안 해상 풍력단지 본격 추진 ▲미국 아마존 전남브랜드관 100만 달러 수출 달성 ▲한전공대 교사(敎舍) 확보 대책 ▲예산 9조원 시대 개막 ▲방사광가속기 호남유지 지지 등이 10대 뉴스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1위를 차지한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기대'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도의 열망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2위인 '남도장터 매출액 사상 최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택트 비대면 거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농어업인과 소상공인들의 극심한 불황을 타개할 대안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상생카드 10% 할인 내년 6월까지 연장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 상생카드 10% 특별 할인 기간을 연말에서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광주 상생카드는 작년 발행 총액(863억원)의 10배에 달하는 8400억원 규모로 발행됐다. 가계 긴급생계비, 긴급재난 지원금 등 2500억원대 각종 정책 자금 지급, 국비 지원 확대, 특별할인 기간 연장 등으로 발행과 이용 규모가 커졌다. 내년 발행 목표액은 6000억원이다.

광주시는 광주은행 외 다른 은행 계좌에서도 선불식 충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충전, 환불, 잔액조회 등 시스템 화면도 고객 편의에 맞춰 재구성하기로 했다. 또 상생카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공공배달앱에 상생카드를 연동해 비대면, 온라인에서도 상생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남언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은 "광주상생카드는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지역 내 소비 진작으로 서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며 "내년에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카드 이용 활성화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방역 수칙 이행실태 점검 김중호(맨 왼쪽)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26일 저녁 상무지구 내 숙박시설 및 유흥시설을 방문,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 민선 7기 최대 규모 3급 3명 등 224명 승진 의결

광주시는 "지난 2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조직개편, 공로연수, 명예퇴직 등 결원 직위에 모두 224명을 승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승진 인사는 민선 7기 최대 규모로, 경제자유구역청 신설과 장기 교육정원, 중앙 부처 신규 파견 등으로 승진 요인이 증가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급별로 3급 3명, 4급 11명(직무대리 2명 포함), 5급 40명, 6급 76명, 7급 62명, 8급 32명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24곳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완료해 도시공원 일몰제 현안을 해결한 정대경 공원복지과장, 11대 대표 사업 육성에 기여한 이치선 미래산업정책과장, 군 공항 이전 공강대 확산에 힘쓴 배복훈 군공항정책과장이 3급으로 승진했다.

또 핵심 사업인 광주형 일자리, 인공지능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아이 돌봄 인프라 구축, 광주 관광재단 출범,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 성과 창출에 공로가 있는 후보자들이 다수 승진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 자 4급 이상 국·과장급에 이어 같은 달 18일까지 5급 이하 정보 인사를 마무리해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직 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금형단지, 전국 최초 '밀크런 시범 단지' 선정

물류비용 40% 절감 기대 일괄구매로 자재수급 안정

광주시는 "광주 금형 특화단지가 산업동상자 원부에서 '밀크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뿌리산업 물류 효율화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

다.

밀크런은 수요자가 직접 여러 공급자를 순회하며 자재를 일괄 수거해 운송하는 방식이다. 개별 운송이 아닌 통합물류로 물류비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과거 우유 회사가 축산 농가를 돌면서 우유를 거둔 방식에서 유래했다.

광주 금형 특화단지는 해외 수입 금형부품 중 국

동구매를 통한 물류효율화가 적합한 가스스프링(Gas Spring)과 웨어플레이트(Ware plate)를 대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 금형기업들은 그동안 금형부품인 가스스프링(Gas Spring)과 웨어플레이트(ware Plate)를 일본, 스웨덴, 독일 등에서 기업마다 개별 수입해 왔다.

금형기업들이 스웨덴과 독일에서 각각 발주-운송하던 부품을 밀크런 방식으로 일괄 발주해 로테르담항에서 수거한 뒤 (사)한국금형산업진흥회 물류센터를 통해 공급하는 체계로 전환할 경우, 물류비용(운송비) 중 40%(연간 1억 3000여만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괄구매를 통한 구매비 절감과 부품 공급망 다변화 및 신속한 부품 공급에 따른 자재수급 안정화 등으로 기업 경쟁력 상승 효과 등이 기대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스마트한 국토
가치 있는 정보
국민의 공사

미래혁신, 책임과 신뢰, 글로벌 최고, 소통과 화합

LX총보대사 박명경 MBC이나온서

스마트 사회를 선도하는 국토정보 플랫폼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과 공간정보·지적제도 연구개발 및 지적측량 수행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합니다.

LX 지적측량·공간정보 전문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www.lx.or.kr